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2026년부터 매일 예수님께 허락받아 사는 생활[20] ~26년 6월21일 주일말씀

◆피조물은? 매일 허락받아 멋대로 아닌 창조주의 뜻 안에서만 살아야 하는 존재다. 다른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살아왔고 살고 있다. 사람이 자기 주인 되어 불행으로 살아왔고,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사랑으로 용서받기도 불행적 오소를 버리 못했다. 창조주 아버지께서는 죄에서 돌아설 시간을 우리에게만 주시기 위해 지금도 따뜻한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명심 할 것은 예수님을 만물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천국 복음의 사랑) 종교적 행위와 그 어떤 전도, 열심도 아무 소용 없다. 만물의 주인으로 섬김의 열매? 천국 복음=한 가족됨=영생에 소망을 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열매 맺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 에베소서1장 1. 멋대로가 아닌 뜻대로 살려한다. 세상 모든 일을 다 맡겨 열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자유함으로 산다.

4.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이를 일을 정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보시기에 한 점 흠이 없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우리는 **그분의 사랑속에 싸여 있는 것입니다.** 5.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우리 대신 죽게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로 이 계획을 실천하셨습니다. 6.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창세 전 한 가족 삼으시려는 계획(사랑에 쌓여있음)=그림자⇒2000년 전 실체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사랑의 나타남, 사랑의 확증, 사랑의 가르침, 참사랑=아가페 사랑, 사랑의 극치=절정,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쏟아부음, 큰 사랑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심=창세 전 한 가족 삼으심의 계획을, 율법을 죽음과 부활로 확증 완성 하심. ⇒새 계명을 명하심

히브리서12장⇒믿음이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에녹, 아벨, 노아, 모세, 아브라함등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사랑에 대한 것이었다.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예수를 바라보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만일 여러분이 지치거나 낙심케 되거든 죄인들의 무서운 만행을 참고 견디신 **예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한 가족 삼기 위한 사랑 12. ~느슨해진 주먹을 힘껏 쥐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일으켜 세우십시오.

=이사야53장 6. 우리는 모두 ~제멋대로 돌아다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그에게 지워놓으셨다 7. 그는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번 열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미 양처럼 입 한번 열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다 참았다.**

에베소서2장4. 공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음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보좌 우편=영광에 참여 =로마서8장 1.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되었으니

17.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라다면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게 마땅 할 것입니다 18.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음 30. ~그리스도의 선량한 성품을 지니게 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으며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1서4장 9.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10. ~우리는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 사랑하는 외아들을 희생제물로 내주신 데서 나타났습니다. = 사랑의 극치입니다. 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에 반응하는 믿음

로마서8장 1. 창세 전에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 계획=육아, 양육일지의 사랑이야기 36.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취급당하며 살아갑니다.' 37. 그러나 우리는 결국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38.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죽음도, 생명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지옥의 모든 세력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멀리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오늘에 대한 우리의 염려도 내일에 대한 우리의 공포도** 39. 또는 하늘 높이 올라가거나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거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사랑을 계속 진행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랑으로 성장 키워가는 것이다. 사랑을 세상 욕망과 피혹에 희미해져, 빼앗기지 말라. 34. 그러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오른편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35.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 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고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이것도 사랑이다.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이것도 사랑이다.

히브리서11장⇒주전 2400년 전에 노아는 매일 허락 받아 사는 생활로 온 가족을 구원한 사람이다. 재림을 기다리는 본보기다. 7. 노아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의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경고해 주셨을 때 홍수의 조짐 같은 것이 전혀 없었는데도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어 자기 가족을 구해 냈습니다. =천국 복음을 믿고 매일 허락을 받아 순종했다.

10.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하늘의 도성으로 그를 데려다 주시리라는 확신 속에서 기다리고 산 것입니다 13. ~그들은 ~잠시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14. ~하늘에 있는 참 고향을 ~하늘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위해 하늘의 도성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39. 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것을 전부 다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10장⇒광야교회 성도들도 창세 전 천국 복음+십자가 사랑의 그림자를 경험했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잊었다. 미혹됨 1.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3.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4.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창세기3장 21.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짐승 가족으로 옷을 해 입혔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가족옷을 입었다. 창세기4장 2.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히브리서11장4. 아벨이 ~순종하여 가인의 제물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린 것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12장 13.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13장9.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피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와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 신명기6장4~9절, 8장11절~ 히브리서3장 1.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0.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13.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4.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듣고, 많이 외워, 지식으로 가르쳐도 창조주 아버지의 만물의 주인으로 우리를 한 가족삼음의 위대한 사건=아가페 사랑이야기를(=육아, 양육, 사랑일지) 발견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안에서 빠져 살지 못하면 영생과 관계 없다.

성경에서 아가페 사랑을 발견⇒경험으로 깨닫고(=양육)⇒내 생활의 열매로 사랑을 진행 완성해 감. 성경을 살므로 나타내야 말씀이다
 ⇒아가페 사랑의 오해? 감정적, 인간적 사랑 아님, 죄와 불의, 방종, 정과 욕심을 용납지 않는 아들을 죽이신 공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 닮은 마음이 변화된 새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살라. ⇒다시는 범죄치 말라.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고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건디느니라⇒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
 하고 있는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 곧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자매가 된 사람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요한1서 5장2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면서 가야 한다.

⇒새 계명은 선한 목적이랄도 성경을 벗어난 진리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니다 사회적악자(=가난한 자, 소외 된자, 소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1순위가 아닌 지체들 부터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에베소서2장

20.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머릿돌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21.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점점 커가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22.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21장

9. ~어린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보여주겠다." 10. ~나는 아름다운 도시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계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12. ~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14.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22. 성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 이심이라.
 =에베소서4장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주 안에서 완전히 성숙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요한복음17장
 3.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땅 위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4. 나는 아버지께서 맡겨 주신 그 모든 일을 이름으로써 이 땅 위에서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5. 아버지, 이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 앞에서 다시 누릴 수 있게 내영광을 드러내소서
 11.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돌보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12.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 모든식구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21.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나의 기도는 마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이들도 우리 안에 있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2.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본래 하나이듯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23. 내가 이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모두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이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세상이 깨달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4.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을 나와 함께 있게 해주소서.
 그리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이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해주소서.

요한1서2장
 2.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자신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몸소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사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 그렇게 하신것입니다

3.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 볼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5.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익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를 분간하는 방법입니다.

6.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7.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 여러분이 지켜야 할 새 계명을 알려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고 이미 여러 번 들었던 옛 계명입니다. 8. 그러나 이 계명은 언제나 새로운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참되다는 것이 드러났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참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의 생활에서 어둠은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의 빛이 비추어 옵니다

=요한1서4장
 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17.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의 사랑은 성장하여 더 완전한 것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심판의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15장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 안에 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붙어 있으면

7.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살며 내 말을 자발적으로 따르게 되거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8. 내 참제자가 된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살아가라.

12.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4.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다.
 15.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주인은 종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너희는 내 친구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모든 말씀을 너희에게 다 말하였다.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니 세상에 나가 항상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17.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는 것이다.
 18.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면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기억하라.

19.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8.여러분이 남에게 진 빚은 다 갚으십시오. 그러나 언제까지라도 사랑의 빚은 다 갚을 수 없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입이아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그분의 요구를 다 채워 드리는 일입니다.

10.사랑은 아무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요구를 완전히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율법입니다.

11.올바르게 사십시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종말을 향해 시간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잠을 깨십시오. 주께서 오실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습니다.

12.밤은 깊었고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니 어둠에 속하는 악한 행실을 벗어버리고 낮에 사는 사람처럼 바른 생활로 무장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도록 법사에 단정하게 진실하게 행동하십시오.**

진탕 먹고 마시고 술주정을 하거나 음행과 방종에 빠지거나 분쟁과 시기를 일삼거나 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14.**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생활만을 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십자가를 참으심은 나를 한 가족 삼기 위함이다 나를 향한 그 사랑과 한 가족으로 누릴 영광을 생각하여 고난을 통한(=불시험, 믿음의 연단) 예수님의 인격, 마음, 성품, 사랑을 달아가는 양육의 길을=새 사람됨을 기꺼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양육? 불시험, 믿음의 연단, 사랑을 깨달음=고난=격려며, 친자의 증거⇒징계=체적? 불순물 제거=정금만들, =옛사람⇒새사람 됨**

5.하나님께서 마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을** 여러분은 벌써 다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야, 주께서 네게 징계를 내리실 때 너는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 **네 잘못을 책망하실 때 너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 6.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네가 하나님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다.

7.~**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하실 일을 하고 계십니다.아버지로서 자기 자식을 단련시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8.~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도 가족도 될 수 없습니다.**9.비록 우리를 낳아 준 아버지가 꾸짖고 야단치는 일이 있다해도 우리는 그를 따르고 존경합니다.그렇다고 하면 **참되게 사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련을 기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10.우리를 낳아 준 아버지는 우리의 앞날을 위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극히 짧은 기간 동안만 우리를 훈련합니다.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나누어 주려고**

언제나 빠르게 견책하시는 것입니다11.~나중에 가서는 그것이 유익한 결과를 낳아 믿음이나 성격이다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14.**모든 싸움을 피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생활을 추구해 나가십시오.**그렇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을 뵈 수 없기 때문**

입니다. 15.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서로 힘쓰십시오**

22.~**여러분은 이미 시온산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하늘나라)**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수많은 천사들이 즐겁게 모이는 곳입니다.23.또 이곳은 **하늘에 등록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6장4~10절⇔계시록3장14~20절**

여러분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와있으며**하늘에서 구원받고 이미 완전해진 사람들의 영혼 앞에 와 있습니다.** **마태복음24장⇒실체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매일 허락 받아 한 가족=예수님을 담은 새 사람으로 양육 받음에 집중함**

37.**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두 여자가 팻돌질을 하고 있을 때~ 42.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6장

33.**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34.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도 돌보아주실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족하다.**

빌립보3장

18.~**그리스도인이라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19.그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들은 욕망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수치스러운 것을 대단한 것인 양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세상 일에만 마음을 씁니다**

야고보서4장⇒**내 삶의 주인, 살고 죽음, 성공 실패 그분의 손에 달림⇒주권을 인정⇒만물의 주인으로 여김. 매일 겸손히 뜻을 구함**

14.**내일 일을 어떻게 기약할 수 있습니까?사람의 생명은 아침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입니다~얼마 안 가서 사라져 버릴 존재**

15.그러므로 여러분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신다면 사는 동안 이런저런 일을 해야겠다.**'

16.그러나 여러분은 **마음대로 계획을 벌이고 사랑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누가복음12장**

20.**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21.**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허락 된 오늘을 영생이 아닌 정욕과 탐심에 빠져 살지 말라**

고린도전서10장

10.~**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12.그러므로 **조심하십시오** 13.**여러분에게 파고드는 악한 욕망은 새로운 것도 별다른 것도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물리칠 수 없을 만큼 강한 유혹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14.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조심하여 우상숭배를 피하십시오.**

=**요한1서5장** 18.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께서 그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악마가 손을 뻗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19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세상은 악한 자의 세력과 지배 아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20.또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하나님을 알고 찾도록 도와주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21.~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우상이 있거든 곧 그것을 없애 버리십시오.**

◆**우리는 출애굽 받은 광야교회 성도들처럼 영원한 안식처 가나안 땅을 향하여가는 성도들입니다. 마음이 항상 피혹되어 내 욕망으로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일들에 빠지지 말고(비전,꿈,사명=세상 풍조)오늘이란 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여 양육에 충실하라.(=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리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뜻?**

=**허락 된 오늘을 양육에 충실해야 할 목적과 내용?**

재림과 하늘로 부르실 날과 함께 누릴 영광(=한 가족,=영생)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예수님의 한 가족 다름=즉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 사랑의 성품, 사랑의 마음 담은 사랑으로 충만한 새 사람 되는 것이다

⇒**허락 하심의 기본 기준은 이미 밝혀 놓은~하라, 하지 말라, 행하라**는 말씀이다. 영적 내용이지 육적,개인적인 욕망적 요소가 아닌